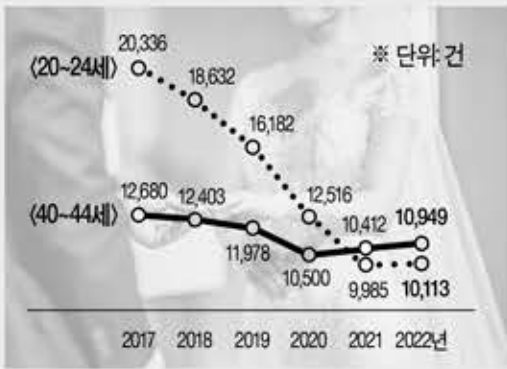


40대 초반 신부, 20대 초반보다 많아졌다



▲ 20대·40대 여성 혼인 건수 추이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에서 만혼이 심화되면서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2022년 혼인 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949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혼인 건수인 1만113건보다 많았다.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2021년 1만412건으로 연령대별 혼인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9985건)를 앞섰다.

전체 혼인 건수는 1997년 38만8,960건에서 2022년 19만1,690건으로 51% 감소했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13만6,918건에서 1만113건으로 93% 줄었다. 반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 7,322건에서 1만949건으로 50% 늘었다.

배경에는 2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가 먼저 꼽힌다. 실제로 해당 여성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혼인율의 경우 20대 초반이 7명으로 40대 초반 5.6명보다 높았지만, 모수가 되는 인구수의 차이로 혼인 건수는 40대 초반 여성이 더 많았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하는 게 좋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57.7%에서 10년만에 35.1%로 쪼그라들었다.

부업자 사상 최대 ... 전체 부업자 약 70%는 가장

한국에서 지난해 부업을 통해 투잡을 뛰는 인구가 54만 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업 인구는 54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 명(7.9%) 늘었다.

최근 5년간 부업자수는 2017년 41만9,000명, 2018년 43만3,000명, 2019년 47만3,000명으로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컸던 2020년에는 44만 7,000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1년 50만6,000명, 2022년 54만6,000명으로 우상향을 이어갔다.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부업자 수는 12만7,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부업자 중에서 가장(가구주인) 부업자는 36만 6,000명으로 전체 부업자 중 67%를 차지했다.



▲ 지난해 부업을 통해 투잡을 뛰는 인구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은 배달 중인 배달기사. 사진=shutterstock

연령별로 보면 60대 고령층에서 가장 높게 증가했다. 60대 부업자수는 2017년 7만9,000명에서 지난해 12만 8,000명으로 62% 늘었다. 20~30대에서는 같은 기간 7만9,000명에서 10만8,000명으로 36.7% 증가해 청년층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령층은 주로 단기·시간제 위주의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며 부업을 통해 생계 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년층은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플랫폼 일자리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업의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1.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7%), 숙박 및 음식점업(7.8%), 건설업(7.6%)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은 5년새 3% 줄었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는 55.6% 늘었다.

청년 50만 명, "그냥 쉬었다"

지난 2월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쉬었던' 20대 이하 청년층이 5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뉴스1'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층은 49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모든 월 통틀어 최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던 사람을 의미한다. 육아, 가사, 재학·수강, 심신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최대치를 기록한 데는 취업

자 수 감소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5,000명 감소해 385만3,000명을 기록했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이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지난해 5월(93만5,000명) 정점을 찍은 뒤 9개월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5년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5,000명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 취업 포기자보다는 다소 좁은 개념이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